

아프리카 제국의 농촌개발정책과 개발전략에 관한 일 고찰

이 문 송

(서울대 사회대 인류학과 부교수)

- | | |
|---------------|----------------|
| 1. 머릿말 | 사업과 전략들 : 사례연구 |
| 2. 농촌개발의 전략들 | 4. 맷는 말 |
| 3. 아프리카의 농촌개발 | |

1. 머릿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제3세계의 나라들이 점차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합되면서 전반적인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서구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식민통치로부터 갓 독립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신생국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서구의 도시문화에 노출되면서 전통적인 자급자족경제가 흔들리게 되었고, 비록 나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신생국들에서는 인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농촌에 남아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농촌개발계획은 사실상 경제개발계획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였다. 이런 나라들이 농촌 저소득층의 생활개선 없이는 전반적인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간단하고도 쉬운 대답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고, 모든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유일의 해결책도 있을 수가 없다. 나라마다 사회환경 및 자연환경의 조건들이 다르고, 각기 상이한 역사적인 배경 또는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목표는 같다고 할지라도 상이한 경로를 거치면서 문제해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전략들은 극히 다양하다.

다른 한편 이들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들은 거의 예외없이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아이디어도, 이를 뒷받침할 재원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해외의 각종 지원 기관들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텔레(Lele 1975:8-11)가 그의 아프리카 농촌개발연구계획에서 다루었던 개발계획목록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그의 분석 대상이 된 17개의 사례 중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의 원조기관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논문은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아프리카 신생독립국들이 농촌개발정책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노력들이 어떤 형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개발계획의 사례들에 기초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물론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들의 사정이 우리와는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판이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개발경험들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농촌개발을 위한 개발도상국간의 국제적인 협력관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프리카의 농촌개발에 관한 이해도 앞으로 호혜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1983년 10월에는 「아시아·아프리카 농촌 재건 기구」(AARRO)의 사업계획의 하나로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국제간의 협력증진 방안들이 논의되었다는 점은 극히 고무적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참조). 그러나 사실 이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연구는 아직 극히 미약한 편이다. 남아프리카의 레소토(Lesotho) 농촌개발을 다룬 왕인근(1982a, 1982b 및 1982c)의 연구는 개발계획에 협지에서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는 거의 개괄적으로 소개(이질현 1982 참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아프리카의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제 1 차적인 관찰의 경험도 없이 단지 제 2 차적인 문헌자료에만 의거한 이 논문은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정검다리로서의 구실을 기대하면서 시도되었다.

2. 농촌개발의 전략들

학자에 따라서, 또는 관심 분야에 따라서 “농촌개발”的 개념이 극히 다양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농촌지역의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그들의 개발과정을 계획적이고 자립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Lele 1975:20)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정의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농촌개발은 생계유지 단계에 머물러 있는 농촌의 저소득층 인구의 생활수준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자립적인 개발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에서 동원되는 각종 자원의 할당 및 서비스는 단지 개발 대상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사실 이 점은 농촌개발계획의 성패의 관건이기도 하다.

또한 개발과정이 자립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현존의 또는 이용 가능한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재원과 인력자원의 동원을 촉진할 기관들을 요한다.

농촌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과정에서는 특히 체계론적인 사고 및 시각(systemic thinking)이 필요하다. 즉 모든 사회문화현상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체계내의 다른 부분들과 유기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변화를 꾀하는 농촌개발사업은 체계내에서의 한 부분의 변화가 가져올 추가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는 체계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초기의 계획 단계에서 소개된 변화는 기존의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동을 유발하게 된다. 개발계획의 성격에 따라 더러는 국부적인 극히 작은 부분의 개혁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농촌개발사업들은 계획단계에서 예기하지 못했던 전반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농촌개발사업은 극히 다양하여 어느 한 가지의 분류방식에 따라 유형을 파악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통합의 정도, 개발의 목적이 얼마나 폭넓은 것인지, 참여하는 인구의 크기, 또는 소요 자금의 출처 등에 따라 농촌개발사업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주로 개발의 목적에 초점을 두

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농촌개발 유형을 개략해 보기로 하자(Lele 1975:12-18 참조).

1) 특용작물 증산 계획 (commodity programs) : 대상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절한 특용작물을 새로이 소개하든가 아니면 증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농촌개발사업의 제유형 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계획·실시될 수 있는 것에 속한다. 이 때의 특용작물은 대개 수출용 작물인 경우가 많고, 사실 이것은 영세농 및 농촌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길이기도 하다. 이런 개발계획사업은 상업적인 회사, 개발위원회, 또는 전식민 정부 등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이 경우는 수출용 특용작물의 생산 그 자체가 제일차적인 목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더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케냐의 차(茶)생산, 탄자니아의 담배생산, 그리고 말리의 목화생산 등은 모두 이런 유형의 개발계획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었고, 또한 모두가 해외기관으로부터의 자금지원에 의하여 계획이 추진되어왔었다. 물론 이런 유형의 개발계획도 단지 생산 및 증산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농업현장 지도 서비스, 신용대출, 유통체계, 가공업분야 등과 같은 변수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별 농촌개발계획 (Regional Rural Development Programs) : 특정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단 개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펴나가는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개발계획은 비교적 단기간에 목표인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생산 및 사회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것이 요구된다. 즉 한정된 지역에 재정과 훈련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여기에서 얻은 성과를 장차 다른 지역 또는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으로 추진된다. 물론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는 토양보존 사업, 도로 건설 또는 확장, 농촌지도, 신용대출, 마아케팅 서비스, 축산진흥, 보건진료사업, 물 공급, 영양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 지역별 농촌개발계획은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로 주로 재정적인 지원기관의 이니시티브에 의하여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와 같이 지역개발사

업을 위한 재정과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는 주로 외국의 지원기관에 의하여 계획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각종 농촌개발계획들의 지원기관 목록에 흔히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CDC: 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

EDF: European Development Fund

FAC: Fonds d'Aide et de Cooperation (France)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World Bank)

NORAD: Norweg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uthority

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외에도 네델란드, 영국, 서독 등의 유럽국가들이 직접 아프리카의 농촌개발계획 사업을 지원한 경우도 적지 않다.

둘째로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아니시어 터브를 가지고 추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진행된 개발사업들이다. 이것은 각 국가가 자력으로 개발계획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농촌의 생계유지 경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농민 대중의 소득 및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각 국가가 스스로 얻으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유형의 개발계획은 해외의 원조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획의 주도권이 해당 국가의 중앙 정부에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3) 기능적인 프로그램 (Functional Programs) : 농촌개발에 특히 장애물로 고려되고 있는 특정의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캠페인으로, 극히 분명하고도 한정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을 불러 일으키기가 쉽다. 또한 많은 인구에 적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새로이 소개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적고, 시행하기가 쉽다는 이점이 있다. 지방도로 건설·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전국적인 농업연구망 확충, 농촌지도, 신용대부 제공 등 농촌 저소득층 인구의 생활수준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는 막힌 데를 뚫는 작업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촛점이 모아진다. 물론 이 경우에도 특정분야에서 새로이 소개된 변화이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과의 새로운 상호 작용관계에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변동을 유발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새로운 지방도로의 건설은 원래의 취지가 무엇이든간에 적절적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역사회간의 접촉의 양상이 달라지고, 새로이 환금작물의 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하나의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끌어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개발계획에서 개혁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충분한 예측없이 시작하는 개발프로그램들은 자칫하다가는 사회 전체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프로그램 외에도 특정 지역이나 영역에 촛점을 두고 있는 개발 사업들, 저소득층 인구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려는 분명한 정책이나 외부기관의 지원 없이도 지역주민들의 이니시티브를 통해서 상당한 개발 노력이 취해지는 예도 적지 않다. 후자의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하는 일종의 자조운동이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이런 농촌개발 사업들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간에 저소득층 인구의 생활 수준을 단기간에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에는 일치하고 있다.

비록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개발 사업이지만,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 첫째로 변형 모델(transformation model)로 농촌지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몇몇 진보적인 농민을 선발하여 새로운 하나의 정착촌을 창설하고 여기에 국가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대체로 이런 모델을 장차 전국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개발계획의 적용가능성을 미리 테스트해 보는 하나의 시범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개선 모델(improvement model)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정착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광범한 지역에 걸쳐서 주로 대중 교육을 통한 권고와 설득에 의하여 주민들의 태도를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농촌생활의 변혁을 피한다. ‘자조’, ‘자립’, ‘협동조합 운동’ 등이 이 개선 모델의 지배적인 슬로건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모델은 주로 성인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만족할 만한 생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을 심어주고, 각 행정 레벨에 개발 위원회를 조직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농촌지도사업과 자조적인 프로젝트들을 추진해 나가는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모델은 넓은 지역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 채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형식의 정치적인 캠페인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즉 농촌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을 조직하여 정치적인 세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자조적인 개발 노력들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이 모두가 극히 전문화되어 있는 행정조직의 담당 부서들의 관심 분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갈만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농촌개발사업의 계측면을 개괄하여 보았다. 이제 그것이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사례연구로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3. 아프리카의 농촌개발사업과 전략들 : 사례연구

어떤 계획적인 사회문화적인 변동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사회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농촌개발을 위한 전략이란 있을 수 없다. 지역적인 특수성 및 사회문화적인 특성들에 따라서 전략들은 달라지게 마련이고, 그렇지 않은 한 그런 개발계획은 목적달성을 키울 때로는 오히려 기존의 사회문화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실시된 농촌개발사업들을 종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여기서는 레레(Lele 1975와 1976)가 그의 '아프리카 농촌개발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사하라 사막 이남의 7개국에서 벌어진 17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5개를 추출하여 개발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이 다섯개의 사례는 모두 위에서 언급한 바의 '지역별 농촌개발계획'에 속하는 종합적인 개발(integrated rural development)사업들이다. 단순히 특정의 분야나 영역에만 치중하는 개발사업보다는 종체적인 시각에서 아프리카의 개발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종합적인 프로젝트만을 선택하였다.

- 1) 이디오피아의 '치라로 농업개발단' (CADU)
- 2) 이디오피아의 '워라로 농업개발단' (WADU)

- 3) 말라위의 ‘리롱웨토지개발사업’ (LLDP)
- 4) 케냐의 ‘농촌개발특별계획’ (SRDP)
- 5) 탄자니아의 ‘우자마아 마을 운동’ (Ujamaa)

위의 다섯개 농촌개발 프로젝트는 다시 계획을 주도하고 추진한 것이 중앙정부인가 아니면 외국의 지원기관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겠다. 위의 세가지(CADU, WADU, LLDP)가 지원기관에 의하여 기획·추진된 것인 반면에, 나머지 두개(SRDP, ‘Ujamaa’)는 해당 국가에 의해서 주도된 개발사업이었다.

또한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그 어느 쪽에서 주도한 것이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탄자니아의 ‘우자마아 마을 운동’은 ‘상향식의 전략’(Bottom-up strategy)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모두 비록 그것이 해외의 지원기관에 의해 주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중앙에서 기획되어 추진된 ‘하향식의 전략’(Top-down strategy)을 취하고 있다.

이제 이 다섯 개의 농촌개발프로젝트가 각기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1 : 이디오피아의 ‘치라로 농업개발단’(Chilalo Agricultural Development Unit, CADU)

경제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디오피아 정부는 우선 하나의 통합된 농촌개발전략을 채택하여 종합적인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특정지역에 모든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는 바 이의 전형적인 예가 ‘치라로 농업개발단’(CADU)이다. 개발자금을 자체로 조달할 능력도 없고 개발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할 능력도 아직 쌓지 못한 이디오피아 정부는 스웨덴 정부의 국제개발처(SIDA)에 이 사업을 전적으로 맡겼고, 극히 일부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치라로 농업개발단은 1967년에 설립되었는데, 수도 아디스바바 남쪽 리프트계곡의 동편 아루씨주의 중앙에 있는 1만 평방 킬로미터에 걸친 지역의 약 40만 주민을 대상으로 펼쳐진 사업이었다. CADU의 목적은 광범한 생산 및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참여자들에게 일인당 평균 순수익을 증가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데에 있었다. 특히 이 사업은 소농에 적합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었고, 대농은 프로그램의 각종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라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이것은 새로운 영농 기술의 도입으로 결국 소농들이 피해를 보거나 쫓겨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취해진 것이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단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발전계획에 적극 참여케 하며, 고용의 기회를 늘리고, 저소득 농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돌리며 연구, 훈련, 기술 이전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스웨덴의 국제개발처(SIDA)의 지원사업인 이 계획에는 SIDA가 자기네 임원들의 비용과 그 나머지의 67%를 부담하였고, 그 나머지의 비용을 이디오피아 정부가 담당하였다.

1972~73년 기간에 CADU의 지도원들은 보리와 밀을 재배하는 농민들 그리고 젖소를 사육하는 농민 1만5천명을 접촉하였고, 1975년에는 그 수가 3만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1966년에서 1971년간에는 시장 및 신용대부의 사정이 좋아지고, 좋은 종자와 비료 때문에 밀을 생산하는 지역도 23,700에서 51,000헥타로 확대되었고, 평균 밀 수확고도 헥타당 거의 2배로 증가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CADU의 연구노력은 다수화 밀과 그외의 다른 씨앗들, 노동 집약적인 농장기구들, 우유를 더 많이 짤 수 있는 잡종들을 개발해 내었다. 농업지도방식들은 모범 농민들과 시범포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장 전략은 곡물가격의 계절적인 안정을 기하고, 농민들에게 생산을 자극할 만한 가격을 확보해 주기 위해 일단 구매하여 저장해놓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 외에도 수차원조사, 농촌보건프로그램, 토양보전, 여성을 대상으로한 사회교육, 그리고 도로 건설등이 포함되었다. 이 계획의 실행요원들을 이디오피아 사람들로 대체하는 작업도 아무 탈 없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사례 2 : 이디오피아의 '워라모 농업개발단' (Wolamo Agricultural Development Unit, WADU)

이디오피아의 워라모 농업개발단은 1970년에 설립된 것으로, 리프트 계곡의 동북부 끝에 있는 시다모주의 워라모 아라야에 위치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3만6천명의 인구를 가진 소도와 보롯소의 고원지대 및 거의 3천5백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인구를 가진 별로 사람이 살지 않는 아벨라와 벨레의 저지대를 포함하고 있다. 워라모 농업개발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1)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6,000명의 영세 농민들

의 가족당 현금수입을 높힌다. (목표 : 연간 이디오피아 \$ 200에서 \$ 325로) (2) 저지대에 1,750가족(10,000명)을 정착시켜 가족당 연평균 수입은 이디오피아 \$ 435까지 끌어올리도록 인구를 재편성한다. (3) 생계위주의 농업에서 환금작물 위주의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4) 정부의 세금수입을 증가시킨다.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발계획은 이디오피아에 이런 개발 사업들의 가치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시도되었다.

1969~74년 간에 WADU의 비용중 69.4%가 IDA차관으로 충당되었고, 영국에서 4.8%, 세계식량계획에서 2.5%, 그리고 나머지 23%를 이디오피아 정부가 부담하였다. 종자개량과 더 좋은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옥수수의 수확이 1972년에는 1969년도의 수확에 비해 헥타당 2.2배로 증가하였다. 이런 투자로부터 나온 헥타당 순수익도 고원지대에서는 이디오피아 \$ 60이나 되었고, 정착지역에서는 무려 \$ 200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1972년 후반 이프로젝트는 저지대에 있는 460명의 정착민을 재조직하고, 새정착민 207명을 받아들였다. 그 해에 WADU의 지도사업은 7,000명의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임원진과 연구 시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WADU의 연구팀은 옥수수의 종자를 개량하고, 가축번식 사업에 진전을 보았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시범지도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체로 농부 각자의 토지에 한 가지의 혁신만을 시범보였다. 농산품의 출하는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조직되었고, 환금작물과 자가소비용 생산 양자를 모두 취급하였다. WADU의 항공탐사와 토질보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1973년에는 도로건설, 직원 훈련, 수질 개선, 가사 교육,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농민들의 건강 등과 같은 WADU에 의해 처음 계획되었던 몇몇 사업들에는 별로 진전이 없었다.

사례 3 : 말라위의 ‘리롱웨 토지개발사업’ (Lilongwe Land Development Program, LLDP)

말라위는 탄자니아와 모잠비크와 함께 말라위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이다. 이 호수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말라위는 서쪽으로 잡비아와도 국경을 같이하고 있다. 이 토지개발사업은 말라위의 중서부에 잡비아와 모잠비크 국경선이 맞닿는 곳 가까이 있는 리롱웨구역에서 실시된 것으로, 말라위 정부의 농업 및 자연자원성 산하의 한 프로젝트 관리단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1967년 IDA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13년간에 걸쳐 실시되

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당시 이 사업은 말라위가 농촌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규모의 사업을 벌이기 전에 실시된 하나의 전초적인 시범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지방의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은 마아케팅, 신용대출, 지도사업, 경지정리, 그리고 농촌의 하부구조의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생산증대를 통해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었다.

이 사업은 465,600헥타에 걸친 광범한 지역과 거의 55만명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토양은 옥수수, 땅콩 및 담배 재배에 적합한 곳이었다. 주민들은 이미 환금작물 생산에 익숙했고, 토지의 등록과 영농의 개선에 호의적이다. 이 LLDP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었다. (1) 농가호당 평균 수입의 증가, (2) 수출용 농산물의 증산, (3) 정부의 세입 증대, (4) 상업지향의 안정된 형태의 농업 기반 조성, (5) 경험있는 요원들로 개발단을 구성하여 옥수수의 수확은 헥타당 1980년에 두배로, 땅콩의 수확은 같은 기간에 헥타당 약 1.3배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72년까지 이 사업의 결과는 별로 뚜렷하지 않았다. 예컨대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타지역과 비교해서, 사업지역의 헥타당 옥수수 수확 증가율은 그리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업 지역의 땅콩의 헥타당 수확은 사업이 실시되고나서 첫 4년간에는 떨어졌다가, 1973~74년 간에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1969~70년과 1971~72년간에는 옥수수와 땅콩의 경작면적이 크게 확대되어, 이 두 작물의 수출로 인한 수입도 많아졌고 인구당 시장에 출하한 양도 년간 10%의 증가를 보였다. 이 사업은 또한 도로 1,373킬로미터, 주요한 교량 15개를 건설하였고 시굴공 340개를 뚫기도 하였다. 1972년에는 25,000명의 농민이 훈련을 받았고, 23,000명의 재배자들이 계절적인 단기 용자를 받기도 하였다. 1970~71년에는 우마차, 대장간 및 기타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으로 160개의 중장기 용자가 제공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업은 수많은 지도원들을 훈련시켰다.

LLDP의 제 2기(1972~75년)에는 가축사육의 발전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65,182헥타의 자란야마 목장이 개설되었고, 1974년에는 여기서 연간 3,400마리의 가축을 생산할 계획이 세워졌다. 또한 연간 이 사업지역에서 생산될 우육은 1970~71년의 366톤에서 1983년에는 1,924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세 가지의 개발사업이 모두 주로 해외의 지원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원 형식에 따라 전개되는 양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사례 1의 CADU는 거의 스웨덴의 국제개발처(SIDA)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단지 이디오피아는 뒤에서 약간의 지원만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같은 나라에서 실시된 사례 2의 WADU는 비록 이디오피아 정부가 부담한 액수가 23%밖에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IDA로부터 '차관'의 형식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그만큼 정부의 역할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WADU의 사업목표에는 고원지대의 주민들을 저지대로 이주시켜 새로운 정착촌을 창설한다는 농업인구의 지역적인 재편성이라는 중대한 사업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상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런 이주 계획이 외국인 개발요원들에 의해 기획되고 실시되었다면 그것이 장차 어떤 이익을 가져오든지를 불문하고 주민들은 일단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간다.

사례 3의 LLDP는 앞에서 본 이디오피아의 개발사업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보다는 한단계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IDA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중앙정부의 한 프로젝트 관리단을 통해 집행되었고, 주민들도 이미 환금작물의 생산에 익숙해 있어서 생산증대를 꾀하고 있는 이 사업에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특기할만 하다.

이 세 가지의 개발사업이 주로 외국의 재정적인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자력으로 농촌개발사업을 벌이려는 노력도 적지 않다. 아래의 두 사례를 통해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을 알아보기로 하자.

사례 4 : 케냐의 '농촌개발특별계획' (Special Rural Development Program, SRDP)

이 계획은 케냐 정부가 종합적인 농촌개발을 수행하고, 국가의 생산력과 복지의 목표를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들로 통합시키기 위한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으로 1960년대 후반에 수립된 것이다. 1966년에 열렸던 케리초 회의에는 계획 및 개발성이 참여하였고, 나이로비대학의 계획위원회, 발전문제연구소, 해외개발처 등으로부터의 임원들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예비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이 SRDP계획이 수립되었다. SRDP의 실제적인 계획과 실시가 늦어지게 된 것은 대체로 부처간의 관계

및 정부와 자금지원기관간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 때문이었다.

1971년에 시작된 이 계획은 케냐 전체 인구의 약6%가 살고 있는 6개 프로그램 지역 안에서 벌어질 수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발전의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디자인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생태학적인 측면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전국의 여러 상이한 지역들을 선택하였다. 이 개발계획은 계획단계 및 기술 원조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 외부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았지만 케냐 정부의 이니시티브로 추진되었다. 선정된 지역과, 거기서 수행된 주요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의 주요스폰서들은 다음과 같다.

(1) 미고리 : 진보적인 농민들을 위한 농촌지도 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스터 농민 프로젝트'와 노동집약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지방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미고리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스웨덴의 국제개발처(SIDA)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2) 음베레 : 농업연구를 강조한 '목화재배구역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3) 태투 : 잡종 옥수수 증산에 치중하도록 계획된 '농촌지도 시범 프로젝트'와 청년들에게 치중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고담백질 음식물의 생산과 준비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특별 4-K프로젝트'로 케냐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4) 비히가 : 신용대출을 해 주고 집약적인 농촌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잡종 옥수수 재배를 더욱 확산시키려는 신용대출계획으로 미국의 국제개발처(US AID)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5) 카펜구리아 : 가축 매매를 활성화시키고, 조직적인 목장을 창설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계획된 '가축 마아케팅 프로젝트'는 네델란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6) 크와레 : 극히 다양한 계획들을 포함한 "연속적인 시행절차" 계획이 영국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실시되었다.

이 프로젝트들의 모두가 완전히 실시된 것은 아니다. SRDP실험의 결과로 1972년 이래로 정부는 케냐의 모든 지역에 까지 이런 통합된 계획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지역개발 담당관의 직책이 새로 창설되어 지역계획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맡겨졌고, 계획의 기본단위도 주(district)에서 구역(district)

으로 확대되었다.

SRDP의 주목적은 농촌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시키며,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시험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발전의 중요한 결합과 장애물을 파악하는 데에 전략의 초점이 두겠다. SRDP의 주요 원리들은 실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기관의 이용, 프로그램의 전이성(transferability)에 대한 강조, 이룩한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계획과 시행의 양쪽에서 모두 크게 강조된 점은 조직간(부처간의)의 협력과 학제간(interdisciplinary)의 협력 문제였다. 대통령과 농촌개발에 관련된 부처의 모든 장관들로 구성된 전국농업개발위원회가 설립되어 프로젝트를 검토 인준하고, 지원사업을 조정하며, 특정의 장애 및 저해요소들에 대해 운영부처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시작되고나서 2년후에 실시된 평가에 따르면, SRDP의 주요 성과는 주로 정부 조직체 내부에서 혁신적이고 융통성있는 절차를 설립함으로써 계획과 실천 간의 차이를 줄이는 분야에 있었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이 직면한 주요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내려는 욕망과 여러가지 이유로(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 옮겨서 실시될 가능성은 없으나 개별적으로는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을 창조해 내려는 압력 간의 갈등이었다.

사례 5 : 탄자니아의 ‘우자마아마을 프로그램’ (*Ujamaa Village Program*) 스와힐리어로 ‘한 가족답다’는 말이고 확대가족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호의무와 기대를 뜻하는 ‘우자마아’는 탄자니아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적 개발 전략이다. 우자마아는 간혹 집단부락들의 창설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실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 출하, 분배를 계획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또한 그들의 사회정치적인 생활의 질을 규정하는 데에 참여하고 결국에 가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전체로 통합된 전략을 가르키는 말이다. 사회적인 평등, 자기신뢰, 농촌개발에 대한 강조, 그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일 등은 또한 우자마아 운동의 중요한 측면들이다.

1960년대 초반 우자마아는 아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하나니 理想과 아이디어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개개의 농민들에게 전통적인 농촌지도를 제공하는 방식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선(improvement)

전략과, 다른 한편으로는, 고도로 집중투자하는 고립된 정착촌들을 창설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변형(transformation) 전략의 두 가지가 모두 우자마아의 철학이 뜻하고 있는 바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에 실패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였다.

1967년의 ‘아루샤선언(Arusha Declaration)’에서 율리우스 니에레레(Julius K. Nyerere) 대통령은 공동으로 조직되는 자조마을들을 전국적으로 창설할 것에 초점을 두는 농촌발전 전략의 일대 전환을 발표하였다. 1967년에서 1973년간에 우자마아 마을은 48개에서 5,631개로 증가되면서, 탄자니아 전체 농촌인구의 15%이상인 200여만 명을 포함하게 되었다. 우자마아 마을 프로그램의 시행은 1974년 중반에 상당히 가속화되었다. 그후 1974년 말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우자마아 마을로 옮겨졌는데, 이때 추가된 인구는 200만 내지 4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농민들을 마을로 모으는 작업은 탄자니아의 가장 덜 발달된 지역, 그리고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에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973년에는 탄자니아 전체의 18개 행정 구역 중에서 4개 구역에서 전체 마을 수의 55%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마을의 평균 크기도 1970년의 272명에서 1973년에는 360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마을들은 조직과 관리 및 기능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 시책의 융통성과 지역적인 조건의 차이를 반영하면서, 몇 가지의 원리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마을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마을 주민들을 ‘우자마아로 가기’를 주장하거나, 또는 새로운 하나의 마을을 창설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5내지 10킬로미터 흩어져 있던 상태에서 중심지역으로 이주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그런 마을이 경제적으로 자리가 잡힐 때까지 필요한 신용대출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우자마아 마을들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일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고, 장차 소유와 생산을 완전 공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예정으로 이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공동경작의 정도는 마을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공동경작 정책은 그후 농촌 사람들의 심한 저항에 부닥쳐서 결국 포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거주지를 마을로 모으는 작업(villagization)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결국 전 농촌 주민들이 마을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자마아 마을들에서는 자초적인 프로젝트들이 강조되었다. 선발된 지도자들은 사회,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에 결정을 내리도록 기대되는 위원회를 형성하

고 있다. 정부의 제반서비스를 시행하는 데에 경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 추가하여, 우자마아 마을들은 국가 건설의 중요한 단위로서, 방위의 단위로, 그리고 정치적인 동원의 단위로 간주되고 있다. 불행히도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생산분야에서의 성취는 극히 한정되었다는 점을 가르키고 있지만, 우자마아 정책이 이룩한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라고는 거의 없다.

이 나라의 유일한 정당인 우자마아 마을 운동은 주로/탄자니아 아프리카 국가연합(Tanganyika African National Union, TANU)과 지구 및 지역 위원회들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 1972년에 이루어진 권력 지방 분할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자마아 마을운동의 계획 및 시행프로그램들이 중앙 정부의 부처에서 지방 행정부로 이관되었다. 우자마아 마을 개발 위원회는 마을과 지방 정부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의 두 사례는 모두 지역 단위의 통합적인 농촌개발사업이기는 하지만 ‘정부주도형’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이전의 것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례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주도형이라고 해서 사업자금이 모두 국내에서 조달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 4의 SRDP는 개발프로그램이 실시된 여섯 개지역 중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 지원기관의 도움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를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가 케냐 정부라는 점에서 이전의 개발계획들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서, SRDP는 여러 해외 지원기관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분명히 케냐정부의 이니시에티브에 의해 사업이 조직되고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SRDP가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되어 하향식으로 실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케냐 정부가 이 개발계획을 통하여 장차 계획을 지방분권화하고,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전략적인 시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들통인다. 이것이 바로 여러 상이한 생태학적인 조건을 갖춘 지역들에서 개발사업이 실시된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례 5의 ‘우자마아’ 마을 운동은 국가의 정치 철학을 반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행정의 지방분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농촌개발사업들 중에서도 독특하다. 1960년대 후반 이래로 급진적인 혁명보다는 ‘진화에 의한 혁명’이라는 특유의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해 온 탄자니아는 이 ‘우자마아’ 마을 운동을 장차 아프리카 사회주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길로 제시하였다. 이 운동에 따르면, 장차 모든 농촌 주민들은 '우자마아' 마을로 조직되고, 마치 집단농장과도 같은 이 마을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마을행정을 담당할 임원들을 선출하고, 정부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아 마을의 발전계획을 짜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민주적인 마을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 운동에서는 강제적인 조치는 철저히 배제될 것이고, 농민들이 이런 '우자마아' 마을에 들어오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끔 유도하는 등의 '자발적인 의사'를 강조하였다. '우자마아' 운동이 광범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을로 끌어들여 모여살게 하는 데에는 상당한 정도의 성공을 본 것 같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농민들을 해방시키려는 취지로 소개하려 했던 사회주의적인 생산양식, 특히 우자마아 마을 단위로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생산을 공동으로 하는 집단농장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작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즉 초기에 사회주의적인 생산을 강조했던 방침은 1974년에 대규모의 집단화 물결이 지난 후에는 집단적인 생산보다는 개인농이 오히려 강조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말았다. 이에 추가해서 이 운동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만 받아들이던 것이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원조로 전환되었고, 공평한 소득에 중점을 두던 정책에서 이제 생산증대에도 강조점이 바뀌었다(Mushi 1981:238).

중앙집권적인 농촌개발계획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시도된 이 우자마아 마을운동의 성과를 어느 하나의 척도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착취가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함께 일하며 생산한 것을 나누어 갖고, 고도의 자립경제를 달성한다는 '우자마아' 운동의 원래의 취지는 시행과정에서 많이 변용되고 말았다.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정신은 계속 살아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우자마아 농장을 이용하는 경향이 심했고, 이 점은 과종, 김매기, 수확 등의 농번기에 잘 나타났다. 이와같이 점차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에 의존성이 높아지는 경향은 이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Mushi 1981:213).

4. 맷 는 말

지금까지 동부 아프리카의 4개국에서 실시된 농촌개발사업 다섯 개의 사례를 통하여 개발 전략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사례들이 모두 아프리카의 동부 지역에 치중되어 있고, ‘지역 단위의 통합적인 농촌개발’(regional integrated rural development)의 형태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프리카 전체의 농촌개발사업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논문은 주로 이 개발계획들의 목표와 디자인에 초점을 두었고,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와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거의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사업들의 전모와 그것이 기존의 사회문화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한정된 사례를 통해서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들의 농촌개발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읽을 수 있고, 각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개발전략들을 창안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농촌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해 서구의 선진 공업국가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온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한국의 개발경험을 배우고, 농촌개발기술의 이전과 호혜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한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농촌개발의 경험들을 나누어 갖는 것은 단지 그것이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면 독자적인 개발전략을 고안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개개의 농촌개발사업들을 그 사회의 문화체계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변화의 씨앗’은 어디에서나 뿌려질 수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 할지는 기존의 사회문화체계의 성격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왕인근

1982a “The Human Resources Aspect of Lesotho Rural Development Institution-building: An Experiential Memorandum (1981),” 『한국농촌개발연구』, 박영사, pp. 773-794.

1982b “남아 Lesotho 농촌개발의 문제와 과제 : 최저 개발국 농촌개발의 사례”, 『안
당 실태환 박사 고회 기념 논문집』, 법문사, pp. 339-368.

1982c “아프리카 제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의 문제와 과제 : 남아 Lesotho를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농학연구』, 7권 2호 : 231-250.

이질현(편)

1982 『아프리카 5개국의 농촌개발』, 서울대학교 새마을 종합연구소(연구보고 8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편)

1983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과 농촌지도』,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
국제회의 보고서, 1983. 10. 12~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ele, Uma

1975 *The Design of Rural Development: Lessons from Africa*,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Designing Rural Development Programs: Lessons from Past Experience in
Africa,” i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an., 1976), pp.
287-308.

Mushi, Samuel S.

1981 “Community Development in Tanzania,” in *Community Development*, by
Ronald Dore & Zoë Mars (eds.), London: Croom Helm, pp. 137-242.